

‘효’ 동화 읽기 활동에 나타난 유아기 어머니의 경험양상

윤 혜 경¹⁾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이 경 민²⁾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점에서 나타난 효의 경험양상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B시의 G센터에서 운영하는 H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머니 5명으로 주 1회, 회당 1시간 30분정도 총 4회의 H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관찰한 보고서, 각 회기를 녹음한 대화 전사자료, 연구 참여자 저널자료 등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자료감소, 자료의 배열, 결론도출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의 과정은 유아교육전문가 3인의 독립적 자료 분석 후 3회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나타난 유아 어머니의 효의 경험은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유아가 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알고 성장하여 되돌려 주기를 기대하는 올리효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어머니는 원가족과의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은 전승하고 부정적인 것은 전승하고 싶지 않으며 자녀들이 긍정적인 것만 수용하여 바람직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기 어머니들은 효가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이며 포용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경험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효에 대한 사회윤리관을 큰 무게감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 어머니들의 경험에 기초한 효에 현대사회 관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 덕목과 관련한 이해를 돕고, 유아인성교육에서 효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효 경험양상, 동화 읽기, 유아기 어머니

1)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시간강사

2) 교신저자 :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kminlee@deu.ac.kr)

I. 서 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가족은 1차적 사회집단이며,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주어진 역할, 규칙 등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 발달하는 사회적 체계를 가진다. 이러한 사회적 체계는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적 삶의 양식에 따라 지속 발전하며 성장한다. 어떤 문화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지속 발전하지만 어떤 문화는 시대적, 상황적 흐름에서 배제되어 도태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가족은 한 사회의 관계문화를 배우고 전수하는 주요한 장이다.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서 가족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효를 꼽을 수 있다.

효는 전통적 사회에서 인간 사회의 기본 윤리, 질서로서의 규범적 성격으로 우리 민족의 근본적 사상으로 섬겨왔다(류승희, 홍지명, 2015; 박창근, 2005; 성규탁, 2005; 이현경, 홍지명, 2017; 임성혜, 부성숙, 2017). 협의에서 효는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간 관계에 국한한 것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자녀의 행위를 의미한다(두산백과, n.d.). 즉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한다는 가족 구성원내의 도리를 다하는 상호 호혜적 가치이자 가정 윤리로 정의된다. 광의에서 효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가정 윤리를 바탕으로 이웃, 사회, 나라, 자연의 사랑으로 인류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이타적인 가치로 정의된다(김대연, 2012; 김종두, 2012; 노홍호, 2008; 장재

천, 2006).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에 대한 법률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효를 덕목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도 효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갖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조부모나 지역사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의 근본으로 효에 대하여 유아에게 가르침을 주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효의 내용으로는 사랑, 예절, 공경 등이 있다. 사랑은 부모님을 믿고 귀중하게 느끼는 마음과 태도이며, 예절은 부모님을 공경하여 모시는 예의바른 마음과 실천의 행동이다. 공경은 부모님을 공손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효의 내용을 강조하였다(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13)의 3~5세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도 유아기부터 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효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유아기부터 효의 의미를 배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 내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육에서 효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효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효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고령화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가치로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경, 홍지명, 2017). 또한 유아교사들은 효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오세봉, 2015; 정아란, 2016), 효 교육의 내용으로는 부모님께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선진, 2011). 류승희와 홍지명(2015)의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효 교육활동이 유아의 조망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유아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 교육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족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유아기 효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가족과 관련한 효 연구로는 유아의 인성수준과 효 행동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박은주, 2014; 임성혜, 부성숙, 2017),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의 효 행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형영옥, 2007)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효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행이며 모든 사회생활에 근본으로 간주되었다. 때문에 전통 사회의 대표적 자녀교육은 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삼강오륜의 덕목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부모를 섬김을 근본으로 하였다(이선화, 2014). 삼강오륜에서 효는 부모가 베푸는 자애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보은하는 자발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으로 강조되었다(이숙희, 신효식, 이선정, 2005).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기, 부모님 기쁘게 해 드리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기, 웃어른 공경하기 등 대표적인 효 실천 행동을 유아기부터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이선화, 2014; 정의철, 2005). 김진걸(2002)과 박창근(2005)은 또한 전통문화인 효의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익히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시기적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효는 사람의 됨됨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성과도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김두현, 2011; 이선화, 2014). 하지만 개인주의, 성과중심 주의, 물질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신중심의 전통문화가 소외되고 외면되고 있으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또한 효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관을 부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성규탁, 2005; 이성재, 2001). 효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방향으로 재개념화를 통해 나아갈 때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 되었다(김익수, 2013; 이미란, 2014).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삶은 다원화 되어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배경을 고려할 때 효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효 교육은 전통과 현대사회의 주요한 정신문화를 전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배경자, 2006; 차우규, 2011).

효는 사회의 변화로 중심 윤리관으로서는 부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에 의한 도덕적 윤리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관점은 효의 교육내용에 반영되어 부모에 대한 공경, 보은, 감사나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일방향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신선진, 2011). 박재완(2016)은 효에 대한 개념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본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통적 윤리관에서 받아들여할 부분 또한 재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대연(2012)과 이숙희, 신효식과 이선정(2005)은 효의 상호호혜적인 양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최근 일방향보다 양방향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김지나, 2014; Bigner, 2007; Parke & Buriel, 2006). 발달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질, 애착, 안정, 친밀감, 정서적 유대 등과 같은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예로 할 수 있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윤지원, 도현심, 2018). 같은 차원에서 효도 부모와 자녀와의 양방향적 관계에서 볼 필요가 있다. 박재완(2016), 오길주와 곽종형(2016)은 효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수평적 인간관계라는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윤리관에서 의무만을 강요하는 일방향의 윤리보다 서로 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호혜적인 덕목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효는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윤리, 도덕적 행위로 인식되지만 일방향적인 의무로 강조된다면 정작 실천의 주체자인 행위자 관점은 부정될 수 있다. 때문에 효의 윤리성에 기초한 인성교육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가족과 지역사회에 패륜이 난무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우영호(2004)는 유아기 효와 같은 관계를 맺는 경험이 이후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삶의 방향과 도덕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유아기 부모와의 관계는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이다(최미숙,

문신혜, 김치곤, 이경희, 2008). 생애 초기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김윤수, 2003; 나미순, 2006; 우영호, 2004; 윤기영, 2002; 윤춘한, 2011; 조은하, 2013; 최정희, 신나리, 2018)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입증하였다.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인지 전통사회인지의 시대적 차이와는 무관할 것이다. 유아에게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 세대 간의 관계를 맺는 실천방식의 롤 모델이자 교육의 주체자이다. 어머니의 생활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유아가 부모에 대한 효의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효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효와 관련된 어머니의 생각, 기억, 생활 등은 유아기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를 통해 유아들에게 전수될 효의 실체이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어머니의 경험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효의 전수와 유아기 인성교육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대상으로 효를 다루기 이전에 유아에게 경험되고 전달되는 실제로 어머니의 효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부각된 미담으로서의 효경험이 아닌 가치중립적으로 부정과 긍정의 경험을 포함하여 개개인이 경험하는 효를 탐색하였다는 점, 일방향의 관계가 아닌 양방향적 가족 관계로서 효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점 등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의 관점에서 나타난 효의 경험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효의 긍정성과 부정성 탐색을 통해 자녀와 부모 양방향

관계에서의 효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B시의 G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 활동으로 구성된 H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머니 8명이다. H 프로그램은 G센터에서 가족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발적 독서활동 모임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유아기 자녀를 두었으며, 육아를 위해 현재는 사회적 직업을 가지지 않는 전업주부들이었다. ㄱ 어머니, ㄴ 어머니, ㄷ 어머니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특히 ㄱ 어머니는 자녀와의 대화, 자녀 마음 읽기 등 자녀교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그리고 ㄴ 어머니와 ㄷ 어머니는 자매사이였다. ㄷ 어머니는 자녀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ㄴ 어머니(언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개인적인 사

정으로 한두 번 참여하지 못한 3명의 어머니들을 제외하고 한 번도 결석 없이 참여한 어머니 5명이 최종적인 연구 참여자가 되었다. 표 1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들의 자녀연령은 만 5세 2명, 만4세 2명, 만2세 2명, 만1세 3명이며, 어머니들의 연령은 35세 이상인 어머니 4명, 45세 이상인 어머니 1명이었다. 어머니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2명, 초대졸업 1명, 대학교 졸업 2명의 배경변인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2.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는 오리엔테이션, 동화 읽기, 경험담 나누기, 저널쓰기의 4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오리엔테이션은 유아기 어머니의 관점에서 효의 주제를 담고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및 일정 안내,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 소개가 이루어졌다. 2단계 동화 읽기는 효와 관련한 동화읽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동화는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독자에게 조망능력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매개적 역할을 한다. 효와 관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변인

연구 참여자	자녀연령	연령	학력
ㄱ 어머니	만 5세(여), 4세(여), 1세(여)	38세	고등학교졸업
ㄴ 어머니	만 5세(남), 2세(남), 1세(남)	38세	대학교졸업
ㄷ 어머니	만 4세(남)	36세	초대졸업
ㄹ 어머니	만 1세(여)	45세	고등학교졸업
ㅁ 어머니	만 2세(남)	36세	대학교졸업

런한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Munsch, 2000)와 ‘오른발, 왼발’(DePaola, 1999)을 읽고 난 후 유아기 어머니들은 동화를 통해 공감하거나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는 대화시간으로 이루어졌다. 3단계 경험담 나누기는 2단계에서 읽었던 동화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실천한 경험담 나누기로 이루어졌다. 4단계 저널쓰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저널쓰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주 1회, 4회기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 관찰한 보고서, 각 회기를 녹음한 대화 전사자료, 연구 참여자 저널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 및 녹음 전사자료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내부참여자로서의 역할과 프로그램을 통한 외부관찰자로서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외부관찰자로서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표정, 몸짓, 프로그램 진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관찰하였다. 관찰한 내용은 프로그램을 마치고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내부참여자로서는 프로그램의 리더 역할을 하였으며,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 참여자 간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에 대한 동의서는 오리엔테이션 때 미리 공지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바로 관찰 보고서

작성과 대화내용 녹음 자료를 전사를 하였으며, 내용 파악이 모호한 것은 다음 모임에서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저널 자료

본 연구의 저널 자료는 마지막 4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저널쓰기를 마친 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궁금한 내용은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Miles와 Huberman(1984)의 자료 감소, 자료의 배열, 결론도출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자료감소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읽고 검토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비슷한 내용을 모아서 응축하면서 자료를 줄여 간소화하였다. 2단계 자료의 배열에서는 자료감소에서 응축한 자료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고 결론의 도출을 가능하게 정보를 조직적으로 재배열하였다. 3단계 결론도출에서는 자료의 배열단계에서 배열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고 주제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은 유아교육전문 3인(유아교육과 교수, 대학 강사, 박사수료 어린이집 원장)의 독립적 자료 분석 후 3회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아교육전문 3인 간 3회의 협의 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에서는 1단계 자료감소의 단계에 따라 유아교육 전문 3인 간 수집 자료를 충분히 읽고 검토하여 최종 10개로 응축하여 자료를 간소화한 후 협의가 시작되었다. 개인

별로 간소화한 자료를 공유하고 자료의 재간소화가 이루어졌다. 비슷한 자료끼리 재배열을 통해 30개의 자료가 10개로 간소화되었다. 10개 자료의 목록화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 원가족과의 관계, 부와 자녀와의 관계, 모와 자녀와의관계, 어릴 적 효의 경험, 부모와의 경험, 조부모와의 경험, 사회적 효 등이었다. 2회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3인 간 협의로 도출된 10개의 자료를 다시 읽기를 통해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10개의 자료를 다시 5개로 재배열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자료의 배열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한 내용은 사랑, 관계의 소중함, 경험에 따른 효, 효의 부담감, 받고 싶은 효 등이었다. 3회에서는 2회에서 선정된 5개의 자료를 다시 읽기를 통해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은 의미 도출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4개의 의미를 도출하고 주제를 생성하였다. 주제로 생성된 내용은 율리효도,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무조건적 사랑, 효의 무게감 등이었다.

연구자 간 자료 분석 과정에서 주제별 약호화는 색깔코딩 방법으로 하였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효와 관련하여 특정한 주제나 이슈를 나타내는 내용이 느껴졌을 경우 색깔로 코딩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분류가 어려운 내용이나 연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자료를 각자 다시 읽기를 하고, 연구자간 의견을 재공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이메일이나 SNS에서 의견을 재공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유아기어머니의 효에 관한 경험양상은 1. 율리효도, 2.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3. 무조건적 사랑 4. 효의 무게감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율리효도

김평일(2004)에 의하면 효는 내리사랑이면서 ‘율리효도’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며, 율리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반대로 은혜에 대한 보은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보편적 가치를 뜻한다. 효의 생활화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심청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심청의 희생을 통한 ‘효’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보다 아버지에게 대한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정순화, 김시혜, 1996). 인간의 ‘정’도 중력에 의한 자연낙하의 원리처럼 자정은 아래로 흐르고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위로 향하는 효는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정옥분, 정순화, 2008). 즉, 효는 아름다운 윤리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공감되지만 예나 지금이나 효의 실천적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가 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알고, 성장하여 되돌려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효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1은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표현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예 2의 경우, 본인의 자녀도 그림책 주인공처럼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자녀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예 3에 의하면 그림책을 반추하여 자신의 바람을 반영하였다.

예 1.

리더(연구자): 프로그램 마치고 가정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ㄴ 어머니: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동생들이 아직 어리니깐 가끔 큰 애가 소외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큰 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큰 아들을 안아주거나 뽀뽀해 주었어요. 무척 쑥스러워 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이 느껴져요. 자주 해줘야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는 저희 아들도 제 마음을 알아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고,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표현을 잘 안 해요. (2016. 6. 21. 3회기, ㄴ 어머니 대화내용)

예 2.

리더(연구자): 그림책을 감상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ㄹ 어머니는 리더(연구자)의 질문을 받아 그림책을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핀다. 앞뒤로 책장을 넘기다 한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어서 옆의 글을 눈으로 읽는다. 고개를 들고

서 선정한 그림책 장면을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2016. 6. 14. 2회기, 관찰 보고서)

ㄹ 어머니: 어렸을 때 들은 엄마의 자장가 노래를 아들이 늙은 어머니에게 불러주잖아요.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아들이 엄마에게 돌려주잖아요. 저도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고, 우리 아이한테 받고 싶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 드려야지 하는 생각보다 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네요. (2016. 6. 14. 2회기, ㄹ 어머니 대화내용)

예 3.

리더(연구자): 조부모님과 어린 적 추억을 떠올려 보시고,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ㄷ 어머니: 저는 조부모님을 뵈는 적이 없어서 그림책의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 부럽기만 하네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걸음마를 지금은 병든 할아버지에게 걸음마를 되돌려주네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림책의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저도 이런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네요. (2016. 6. 21. 3회기, ㄷ 어머니 대화내용)

2.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세상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자식교육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식이 잘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마음 다침이 없어야 한다. 맹자 왈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바르게 되도록 가르치는데, 배우는 자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성내는 일이 이어진다. 성내는 일이 이어지면, 도리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을 다치게 되고 이는 나쁜 일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좋지 못한 일은 없다’라고 하였다(정천구, 2014). 이처럼 부모는 자신보다 나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원한다.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던 자녀는 바람직한 인격형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효의 전승에 있어서 부모와의 긍정적 경험은 전승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정적 경험은 전승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예 4는 친정어머니의 형제간 평등하게 대하고 자립심을 길러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고, 이를 자녀에게 전승하고 싶어 하였다. 예 5의 경우, 일방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친정아버지로부터 대화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대화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다.

예 4.

리더(연구자): 부모님과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보시고, 묘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ㄴ 어머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

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4남매를 키웠어요. 없는 형편에도 평등하게 대해 주신 것 같고 차별을 받았거나 자매끼리 싸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자유롭게 키우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자립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과 친구 같고 뭐든지 의논할 수 있으면서 자립심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 6. 21. 3회기, ㄴ 어머니 대화내용)

예 5.

ㄱ 어머니는 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다.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 톡 두드리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였다. 고개를 들더니, ㄴ 어머니가 무척 부럽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2016. 6. 21. 3회기, 관찰 보고서)

ㄱ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대화하고 정 많은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대화 방식이 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저는 거기에 못 맞추니 항상 아버지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가 잘 되는 엄마였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6. 6. 21. 3회기, ㄱ 어머니 대화내용)

3. 무조건적 사랑

부모의 사랑에 결실로 자녀가 태어난다. 부모는 자녀를 얻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사랑이다. 뱃속의 태아에게 주는 원초적 사랑을 시작으로 자녀에게 베푸는 자애를 끊임없이 나누어 준다(김중두, 2012). 전통가족에서 엄부자모가 부모 역할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다.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과 어머니의 자애로운 보살핌이 합쳐져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이계학, 1991). 아버지의 ‘父’는 사람이 오른손에 한 개의 회초리를 든 모양을 본떠서 아버지를 상징화한 것에 반해 어머니의 ‘母’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편안하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정옥분, 정순화, 2008). 이렇듯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와 관련된 접촉을 함으로써 보다 친숙하고 헌신적인 돌봄과 사랑을 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효는 자녀에게 주는 무조건적이고 포용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6은 자녀의 더러움도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해하였다. 예 7의 경우,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예 8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녀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어머니에게 감동하였다. 예 9에 의하면 자녀에게 주고 주고도 끊임없이 나눠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였다.

예 6.

리더(연구자): 그림책을 읽기 전에 그림책

의 겉표지를 보고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 주세요?

- ㄷ 어머니: 아이들의 손이 더럽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입에 손을 넣어도 엄마는 거부감 없이 웃으며 받아줘요. 다른 아이였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인 것 같아요. (2016. 6. 14, 2회기, ㄷ 어머니 대화내용)

예 7.

- ㄱ 어머니는 그림책에 나오는 어머니의 표정을 한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정에 따라 기쁜 표정, 슬픈 표정 등을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2016. 6. 14, 2회기, 관찰보고서)
- ㄱ 어머니: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에서 넘치는 사랑이 느껴져요. 아이의 행동에 따라 엄마표정이 놀랬다가 슬펐다가 기뻐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느껴져요. 모든 감정들이 다 이렇게 닿았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6. 6. 14, 2회기, ㄱ 어머니 대화내용)

예 8.

- ㄹ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였을 때 힘들게 보낸 시간에 대하여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림책에 나오는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 주는 장면을 다른 연구 참여자들

에게 보여 주면서 말씀하였다. (2016. 6. 14, 2회기, 관찰 보고서)

□ 어머니: 아이가 어릴 때는 밤잠을 설치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 4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들은 아이들 때문에 힘을 내죠. 여기서도 엄마가 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아들이 어릴 때나 성장했을 때나 낮이나 밤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자장가를 불러주며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해 줘요. 아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엄마의 사랑은 역시 대단해요. (2016. 6. 14, 2회기, □ 어머니 대화내용)

예 9.

ㄹ 어머니는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가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가면 항상 주기만 해요. 몸이 아프실 때도 괜찮다고 하시며 뭐 만들어서 주시고, 밥 먹는 것 만 봐도 기쁘다고 하시며 끊임없이 자식에게 줄 것을 찾고 주려고 합니다. 항상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시니 내가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시어머니가 주시고 계셨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6. 6. 28, 4 회기, ㄹ 어머니 저널)

4. 효의 무게감

전통사회에서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지켜야 하는 가정윤리관으로 인식되었다(곽중형, 2012; 김대연, 2012).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을 강요하는(신선진, 2011) 효는 자식에게 오히려 효에 대한 부담감과 무게감을 가지게 한다. 효와 관련된 정서적 경험은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경험이 전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정서와 관계맺음에 깊은 영향을 준다. 어린 시절에 애착손상을 입게 되면 그 파괴력은 매우 클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최성애, 조벽, 2017).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 효의 논리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효에 대한 무게감과 거부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자식들에게 원초적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Roibns, 2008).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을 당연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베풀어졌을 부모의 사랑을 부정하는 모순된 내적갈등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개인이 경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의 사회적 윤리관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만을 강요하는 효의 무게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였다. 예 10은 어릴 적 어머니와의 부정적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상황을 속상해 하였으며, 친정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였다. 예 11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받은 어머니로부터의 차별로 인하여 힘들어하였으며,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는 도리와 현재의 자신의 감정과의 갈등상황에서 고민하였다.

예 10.

리더(연구자):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요?

□ 어머니: 우리 엄마는 완전 틀에 메어서 딱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가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데 사회적 규범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각자 개성대로 살면 되는데 꼭 굳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맞추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그러고 있어요. 대물림인 거 아는데 알면서 안 되니 더 속이 터져요. 이틀 후에 엄마가 오시기로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친정엄마가 오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 우리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2016. 6. 21, 3회기, □ 어머니 대화내용)

예 11.

ㄹ 어머니는 □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손을 턱에 괴고 있다가 손을 내려놓더니 어머니들을 한 번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2016. 6. 21. 3회기, 관찰 보고서)

ㄹ 어머니: 저는 친정엄마하고 연락을 안하고 지내거든요.(한숨을 쉰다) 아기 낳고 안 보는데 자랄 때 차별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빠는 장남이라서 아들이라서 사랑하셨어요.

저는 쌍둥이인데도 언니만 사랑하고 아들만 사랑하고 그게 어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보다 어른이니깐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서운한 게 안 풀리네요. 전화가 와도 싫어서 안 받고 싶어요. 언제인가는 풀긴 풀어야겠죠. (2016. 6. 21. 3회기, ㄹ 어머니 대화내용)

ㄹ 어머니는 이야기를 마치며 눈물을 보였다. 맞은편에 있던 ㄴ 어머니가 휴지를 건넸고, 옆에 있던 ㄱ 어머니는 등을 손으로 토닥토닥 해 주며 ‘괜찮아요.’ 라며 위로해 주었다. (2016. 6. 21. 3회기, 관찰 보고서)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들이 H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험한 효과 관련된 경험양상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기어머니의 효과에 관한 경험양상은 1. 울리효과, 2.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3. 무조건적 사랑 4. 효과의 무게감 등 네 가지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알고, 성장하여 되돌려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효과를 희망하였다. 이는 효과를 전통의 정신 가치, 아름다운 미덕으로 보며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도리를 다하는 가정윤리로 정의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유사

하다(곽종형, 2012; 김대연, 2012). 즉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받고 싶은 사랑과 인정 등의 유효도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효를 자식의 도리로 정의하거나(김왕규, 2003),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덕행임을 강조하는 주장(이숙희 등, 2005)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수직적 관계 중심의 도덕관에서 효를 보는 관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장재천, 2015), 현대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곽종형, 2012; 박재완, 2016; 채명금, 2016)과 달리 여전히 효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기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들은 효를 전승하고 싶은 마음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부모와의 긍정적 경험은 전승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정적 경험은 전승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 어머니들은 자신의 원가족과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현재 인격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자신보다 나은 자녀의 인성을 위해 긍정적인 것만이 표현되길 희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인성교육에 관심과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들을(김명진, 2011; 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2012) 반영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과 애정으로 자녀의 가치가 매겨지는 사회에서는 부모는 자녀가 온화하고, 외향적이며, 명랑한 인성특성을 지니기를 희망한다는 Hoffman(1988)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효가 자녀의 인성교육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연구 참여 어머니의 이러한 바람은 가정 내의 자녀 또는 배우자와의 긍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는 원가족과의 좋은 관계경험에서

온다는 연구결과(Luster & Okagaki, 1996)를 볼 때 비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에게 있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며 부모가 관계를 맺는 방식 또한 그대로 전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명시적 교육보다 암시적 교육이 유아의 인성발달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 참여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효는 어머니가 주는 무조건적이고 포용적인 사랑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는 부모의 자연 발생적인 무한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시대와 이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효는 태초부터의 사랑이며 뗄 수 없는 천륜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의 사랑보다 더 순수한 사랑은 없다는 주장(김종두, 2012; 장재천, 2006), 보편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주장(김대연, 2012; 노홍호, 2008)등을 지지한다. 유아기는 부모에게 대부분을 의존하는 시기이기에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돌봄이 중요하다. 부모에게 받은 생애 초기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유아는 자신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베풀어진 수고와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보답하려는 개인적 성향이며,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연결감이기 필요하기 때문이다(권석만, 2011). 이현경과 홍지명(2017)에 의하면 효는 어릴 적 부모와의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후에 부모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간다고 하였다. 김종두(2012)와 장재천(2015)도 효는 부모의 효가 확

대되어 이웃사랑, 형제사랑, 자연사랑, 인류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생명존중사상으로 여겨져 왔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지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경험으로서 효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의 토대이며 자신과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 참여 어머니들은 개인이 경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의 사회적 윤리관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만을 강요하는 효의 무게감으로 힘들어하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어린시절 부정적 부모-자녀관계 경험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 관계를 대물림 하고 있으며, 아직도 남은 이전 부모와의 관계 상처로 효를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호호혜적 관계로 효를 전승하는 건강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가정에서와 달리 많은 가정에서는 부정적인 부모 자녀관계를 대물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EBS 마더쇼크 제작팀,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감사함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상적 가족관계를 전제한 효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폭력적인 가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통관점의 효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이 평균적이라는 잘못된 교육전제를 답습하는 것일 수 있다. Rose(2018)는 평균의 학습자가 있을 것이란 전제는 그 자체로 매우 잘못된 것임을 역설한 바 있다. 학습자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과정과 배경이 존중되는 것에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차원의 교육에서보다 정의적 차원의 교육에서 개인 학습자의 비평

균적인 경험은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효 교육에서 무조건 동일한 특정 대상에 대한 감사함을 강요하기보다는 감사한 사람을 떠올려 보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효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다른 관점이 교육현장에 반영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 어머니들이 표현한 효와 관련된 경험은 소수의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것으로 효에 대한 공통경험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참여 어머니들의 효 경험을 통해 효의 의미와 효 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는 인간 사회의 기본 윤리, 질서로서의 규범적 성격으로 우리 민족의 근본적 사상으로 섬겨왔으며 이에 대한 전승교육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그 의미가 크다(류승희, 홍지명, 2015; 박창근, 2005; 성규탁, 2005; 이현경, 홍지명, 2017; 임성혜, 부성숙, 2017). 전통적 관점에서의 효 개념은 여전히 그 자체로 우리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고유 미덕으로 꼽히며 유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대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효 중심 가치관은 재개념화 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역할 또한 다양화(조성연, 백경숙, 옥경희, 전효성, 전연진, 2017), 구성원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효의 현대적 의미 확장(김대연, 2012),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나아가 나라와 자연을 사랑하는 인류의 보편적 이타적 가치로 효의 재정의화(김대연, 2012; 노홍호,

2008)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개인의 가족관계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민감한 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규탁(2005)과 이성재(2001)는 효가 우리사회 중심 윤리관에서 부정되고 변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아름다운 윤리로 전승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효의 본질이 호혜적 사랑, 이타적 사랑의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 사회 고유의 긍정적인 인성발달에 있음을 폭넓게 수용하여 개개인의 긍정관계 경험을 확장하는 데 효 교육의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 개인이 경험한 효를 통해 효의 전통적이며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른 효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시대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고려한 효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곽종형 (2012). 효 사상의 현대적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 63, 487-512.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 실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긍정 심리학의 관점. 서울: 학지사.
- 김두현 (2011). 한국의 문화: 아동의 인성발달을 위한 효행교육의 인식도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0, 445-494.
- 김대연 (2012). 유교경전과 성경에 나타난 효행교육론. *한국의 청소년문화*, 19, 71-89.
- 김명진 (2011).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왕규 (2003).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효 교육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수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발달수준의 차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익수 (2013). 한국사상 철학: 공자의 효 사상과 인성교육의 원리. *한국사상과 문화*, 67, 129-156.
- 김종두 (2012). 새로운 패러다임의 효 교육: 효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명문당.
- 김지나 (2014). 유아인성과 부모가 인식한 부모-자녀 관계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걸 (2002). 효사상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평일 (2004). 내리사랑 올리효도. 경기: 가나안문화사.
- 나미순 (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홍호 (2008). 기독교의 효 실천이 노인선교에 미치는 영향. *효학연구*, 7, 43-63.
- 두산백과 (n.d.). 효(孝).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0314에서 2018년 11월 10일 인출

- 류승희, 홍지명 (2015). 효 주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유아의 효 행동 및 조망수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6(3), 417-440.
- 박은주 (2014). 기독교적 가족관의 확장을 위한 가정연계 “효” 실천 유아인성교육의 실제. *신학과 실천*, 38, 543-570.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모-자녀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49-566.
- 박재완 (2016). 현대의 효의 의미와 미래의 효의 전망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3(1), 249-261.
- 박창근 (2005). 한국인의 효: 효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서울: 서울언론인클럽.
-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 부산: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 배경자 (2006). 유아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규탁 (2005). 현대 한국인의 효: 전통의 지속과 표현의 변화. 파주, 경기: 집문당.
- 신선진 (2011). 유아기 효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14, 105-125.
- 오길주, 박종형 (2016). 현대사회에서 상호적 관계로 효 개념 재해석 필요성 및 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3(2), 313-325.
- 오세봉 (2015). 영·유아 효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사회복지경영연구*, 2(1), 153-172.
- 우영효 (2004). 유아 인성교육의 방향. *아동교육*, 13(1), 147-158.
- 윤기영 (2002).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교육발전*, 21(1), 169-197.
- 윤지원, 도현심 (2018).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5(2), 51-77.
- 윤춘한 (2011). 어머니의 양육유형과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학 (1991).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 이미란 (2014). 전통교육서를 활용한 누리과정 인성교육의 실제와 적용방안.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291-311.
- 이선화 (2014). 효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효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재 (2001). 서울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의 효 의식과 효행의 실태분석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신효식, 이선정 (2005). 중학생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159-170.
- 이현경, 홍지명 (2017). 유아 효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실태. *인문사회* 21, 8(4), 575-601.
- 임성혜, 부성숙 (2017). 가정과 연계한 효 중심 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 *아동교육*, 26(2), 295-325.
- 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2012). 유아·초등교육 내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인식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87-99.
- 장재천 (2006). 한국인의 가치관과 민족사상:

- 충효윤리의 인성교육적 가치. 한국의 청소년문화, 7, 161-191.
- 장재천 (2015). 제 3부 한국인의 가치관과 인성교육: 효상과 효 교육의 역사적 중요성. 청소년과 효 문화, 25, 215-233.
- 정순화, 김시혜 (1996). 동시를 통해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아동학회지, 17(2), 79-105.
- 정아란 (2016). 신입 예비 유아교사의 ‘효와 인성’ 수업 경험을 통한 효도 인식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0(2), 75-97.
- 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의철 (2005). 고등학생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천구 (2014). 맹자, 시대를 찌르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번역의 새로운 주석서. 부산: 산지니.
- 조성연, 백경숙, 옥경희, 전효정, 전연진 (2017). 가족관계론. 파주, 경기: 양서원.
- 조은하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우규 (2011). 도덕과에서의 효 교육 지도 방안 연구. 인구교육, 4(1), 1-18.
- 채명금 (2016). 효 교육의 현대적 실천 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3(1), 171-188.
- 최미숙, 문신혜, 김치곤, 이경희 (2008). 부모자녀관계와 유아의 성, 또래인기도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54, 99-118.
- 최성애, 조벽 (2017). 정서적 흡수자와 정서적 금수저: 최성애, 조벽 교수가 전하는 애착심리학. 서울: 해냄출판사.
- 최정희, 신나리 (2018).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인간발달연구, 25(3), 51-71.
- 형영옥 (2007). 가족체계유형과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따른 유아의 효행.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igner, J. J. (2007).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의 이해. 박성연, 성숙자, 김상희, 김지신, 박응임, 전춘애, 안지영, 임희수, 이사라, 한세영, 이주연(역). 파주, 경기: 교문사. (원본 발간일, 2006)
- DePaola, T. (1999). 오른발, 왼발. 정해왕(역). 서울: 비룡소. (원본 발간일, 1981)
- EBS 마더쇼크 제작팀. (2012). 마더쇼크. 서울: 중앙북스.
- Hoffman, L. W. (198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goal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8(40), 99-122.
- Luster, T., & Okagaki, L.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1993)
- Miles, M. B., & Huberman, A. M. (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unch, R. N. (2000).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김숙(역). 서울: 북뱅크. (원본 발간일, 1986)
- Parke, R. D., & Buriel, R. (2006).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Vol. 3, pp. 429-50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Robbins, A. (2008).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조진형(역). 서울: 씨앗을뿌리는사람. (원본 발간일, 1992)
- Rose, T. (2018). 평균의 종말: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정미나(역). 서울: 21세기북스. (원본 발간일, 2015)
- 1 차원고접수 : 2018. 10. 05.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The Experience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Reading Filial Piety Fairy Tales

Yoon, Hyekeyung

Lifelong Education Center,
Tongmyong University

Lee, Kyungmi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geu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xperiential aspects in filial p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five mothers with their children aged 1 to 5. They participated in a total of four H-parent education programs once a week, for about one and a half hours per session. The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consisted of reports observed during the program, recorded dialogue transfer data for each session, and study participant's journal. Data analysis consisted of three stages of data reduction, data arrangement, and concluding exposure(Miles & Huberman, 1984), and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ree consultation sessions after independent data analysis of three expe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There are four aspects of the mother's experience in filial piety; Olie Hyo-do, the desirable growth of children, unconditional love, and the weight of filial pie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modern social perspectives on filial piety by learning about the experiences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and to provide suggestions on fili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Keywords: the pattern of filial piety experience, reading fairy tales, mother of young children